

# 다도해의 보석 섬

⑩ 여수시 남면 금오도



1시간 산행 다도해 절경 한눈에  
주민들 대부분 '방풍' 재배 생계  
2월 다리 개통 안도 관광은 덤



## 등산로 아름다운 남해 바다 수호신

도시 사람들에게 섬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다.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이 고개를 쳐든다. 낮은 곳에 대한 환상, 번잡한 도시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슴 한켠이 차오른다. '고립된' 섬으로의 탈출을 감행하는 도회지 사람들이 무척 많은 이유다.

여수시 남면 금오도(27km)는 이런 면에서 상상을 깨트린다. 물론 '여름 한 철 뿐인데, 장사 안되게 무슨 소리냐'며 걱정인 지역민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피서객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휴가철에는 더하다. 차량이 북적대면서 섬다운 특별함이 평범함에 묻혀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수에서 직선 거리로 9km, 돌산읍 신복리 신기마을 선착장에서 배로 25분 거리면 닿는 '가까운' 섬이다. 등산객이라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대부분(382m) 산행길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다, 지난 2월 안도대교(길이 360m·폭 12.5m) 개통으로 금오도에 '담'으로 안도(3.96km)까지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쟁길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여름이면 1시간 간격으로 운항하던 철부선(鐵浮船)이 30분 간격으로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을 줄기차게 쏟아내도 선착장은 한가할 틈이 없다.

섬 밖에서 보는 형상이 자라(鰲)를 닮았다고 해서 금오도(金鰲島)라 불리지만 '남해바다를 지키

는 수호신'을 뜻하는 금빛 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박영우(54) 금오도 직포마을 이장의 설명이다.

금오도는 한때 '비워뒀던 섬'이다. 조선시대 백성의 출입과 벌목이 금지됐던 봉산(封山)으로, 당시 전라좌수영은 이 곳 소나무숲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을 정도로 아름답기 소나무가 울창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궁궐을 짓고 임금의 관을 짜고 관옥선 등 전선을 만들 때 쓰는 황장목이 유명해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이 섬 소나무를 사용했을 정도로 으뜸이었다고 한다. 사슴도 때 지어 살아 조선 말기에는 이곳에 국영 사슴목장이 설치됐다가 1885년 봉산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이 터를 잡았다.

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들려준다. 등산코스로 유명한 옥녀봉의 경우 옛날 선녀가 내려와 놀았던 곳으로, 한 선녀가 인간과 연을 맺은 뒤 올라가지 않자 옥황상제가 선녀를 옥녀봉 바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옥녀봉 인근에서 나무를 베지 않는다고 한다. 옥녀의 치마를 벗기면 재앙이 내린다는 이유에서다.

섬 산행길이 울창한 명품 등산로로 탐바꿈하게 된 것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남아있던 까닭이다.

주민들이 지금껏 간혹 찾아오는 외지 등산객들에게 민박을 내주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은 아

니다. 바다로 둘러싸였지만 어업보다는 농업이 주업으로 한 주민들이 많았다. 좁은 섬에서 농사지를 땅이 부족했던 주민들은 산비탈을 깎아 밭을 일궈고 여기에 고구마와 보리를 심었다. 당시만 해도 한 가족당 5~6명인 자식들을 먹여살려 물으로 내보내던 밭이었다. 한때 1만80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았던 60~70년대 얘기다.

지금도 섬 주민이라야 금오도를 비롯, 안도·연도·두라·화태·황간 등 인근 섬을 다 합쳐야 3695명이 고작이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거칠고 척박한 섬을 등졌고 힘없는 노인들만 남겨졌다. 자연스럽게 밭배기 한 평 일궈 고구마 캐기도 버거웠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눈에 들어온 소득원이 미나리와 식물인 방풍(防風). 초기에는 방풍이 해열 기능과 풍 환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뿌리를 말려 한약재로 내다 파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10년전부터 나물과 찜으로도 쓰여 주민 대부분이 방풍 재배에 나서 현재 409가구가 382.78t을 약용과 식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수확이 가능한데다, 초봄에는 4kg에 1만6000원~1만8000원을 받을 정도로 상품성이 뛰어나고 한 번 심어놓으면 5년 가량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라는 점도 노동력이 부족한 섬 주민들에게 적합했다. 최근에는 친환경 재배농가까지 생겨나 주민 소득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안도대교로 이어진 안도도 비슷했다. 한때 황금어장으로 멸치·갈치를 비롯, 하루 5000kg가 넘는 장어가 잡히던 1960~1980년대 시절, 안도마을에 만 1000명이 넘게 살았다. 장어잡이에 많은 인력(7~8명)이 필요한 탓도 컸다. 하지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주민들의 섬 탈출은 가속화됐다. 바다에 기대고 살지 못하는 데다, 거칠고 척박한 섬 생활을 견디다 못한 젊은층의 이주도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방치됐던 다랑치밭은 방풍으로 채웠다.

손민오(62)안도마을 이장은 "방풍의 경우 젊은 층이 섬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섬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주민 눈에 들어온 또 하나의 소득원이 관광 사업이다. 금오도에 안도대교로 이어진 안도를 합작한 명품 섬 가구기로 관광객 물이에 나선 것이다.

다도해상 절경을 품은 등산로를 '임금님 봉산 생태체험코스'로 정비하고 안도의 에메랄드빛 해변을 갖춘 이야포 해변, 백금포 해수욕장의 풍광에 다양한 스토리를 입히고 있다. 김길홍(61) 안도 서고지마을 이장은 "도심생활에 지쳐버린 일상을 재충전하면서 호젓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섬이 되도록 가꿔나간다면 찾아오는 섬으로 바뀌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시 남면 금오도 등산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금오도에서 안도로 이어지는 안도대교를 비롯, 다도해상의 울창한 숲이 에메랄드빛 바다를 경계로 이어지는 풍광이 매력적이다.



금오도 함구미 마을에서 우학리 선착장까지 남해바다를 끼고 도는 해안도로는 안도대교를 지나 안도마을까지 이어진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1-227-0440  
 송파점: 061-752-8940  
 목포점: 061-262-9200  
 약산점: 061-851-2422

신명전류 WELCOME TO JEONNAM **술로시리 승도**

엘도라도리조트

**서늘버스 매일운행 (익신일 관광버스)**

•당일세비: 15,000원(주유) 왕복 / 18,000원(주유) 왕복

종도 1일 처음관광	요금
서늘버스+영도지도 해수사우나	20,000원
서늘버스+승도문화체험센터	20,000원
서늘버스+승도문화체험센터+해수사우나	25,000원